

“바른말 고운말 사용… 선플 가득 세상 만들어가요”

광주 정광고서 선플운동 한마당

시의회 모니터단 우수의원 선정
김나운·신수정·임미란 의원 수상
“선플운동문화 지역에 퍼져가길”

“선플로 가득한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주 광산구 정광고등학교 학생과 대학생들이 중심이 돼 펼치는 ‘2023년 학교·언어 폭력 예방을 위한 선플운동 한마당’이 마무리됐다.

본보와 사단법인 호남미래포럼, 선플재단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6일 정광고 녹야원 1층 대회의실에서 학생과 교사, 의원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학생들은 언어폭력 예방을 위한 선플누리단 활동 성과를 되돌아보면서 학생이 광주시의원 중 선플운동에 참여한 우수의원을 선정해 시상했다. 선플문화 확산을 위해 누리단으로 모범학생과 교사의 시상도 진행됐다.

이동배 정광고 교장은 기념사를 통해 “미래 주축이 되는 학생들이 직접 선플운동에 동참한 우수의원을 뽑기에 의미가 크다”며 “우수의원들의 수상을 축하하며 선플운동을 주도한 학생과 지도교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선플운동은 아름다운 언어 사용을 통해 언어폭력으로부터 시작되는 학교폭력을



‘2023년도 광주시의회 선플 우수의원상’에 선정된 신수정(왼쪽부터)·임미란·김나운 의원이 시상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양배 기자

예방하고 인성교육을 실천하는 사이버 시대 생명살리기 운동이다

선플운동 일환으로 진행되는 선플우수의원상은 광주지역 고교생 및 대학생으로 구성된 선플모니터단이 1년 분량의 광주시의회 회의록을 분석해 아름다운 언어와 행동을 실천하고 동료의원 간 상호 존중, 청소년 학교 언어폭력 예방에 모범이 된

의원에 주는 상이다.

학생들이 각 의원들마다 얼마나 순화언어를 사용하고 비순화 언어를 자제했는지 분석하며 바른말 고운말 사용에 모범이 된 의원을 선정했다.

그 결과 올해 선플운동 우수의원으로 김나운, 신수정, 임미란 광주시의원이 선정됐다.

시상식에 참석한 김나운 의원은 “지난 2020년 상을 받았었는데 이번에도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며 “1년동안 의정활동을 해가면서 스트레스를 받아 입이 거칠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이 상을 계기로 또 다시 자성하며 바른말 고운말을 쓰도록 노력하겠다. 말은 누군가에 상처를 줄 수 있기에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며 살아

조선대 ‘서울의 봄’ 실제인물 정선엽 병장 명예졸업장 추진

조선대 전자공학과 77학번 영화속 조민범 병장 모티브

영화 ‘서울의 봄’ 촬영지인 조선대학교가 군사반란군의 총탄에 맞고 사망한 모교 출신 정선엽(사진) 병장에 대해 명예졸업장 수여를 추진한다.

조선대는 영화 ‘서울의 봄’에서 지하병커 초병 근무를 서다 군사반란군의 총탄을 맞고 숨진 정선엽(영화 조민범) 병장이 모교 출신인 것으로 확인돼 명예졸업



장 수여를 추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영화 서울의 봄에는 조선대 출신이 2명 등장한다.

작품 후반부에서 육군본부 B-2병거를 지키는 조민범 병장은 당시 조선대 재학 중에 입대한 정선엽 병장을 모티브로 제작됐다.

정 병장은 1956년생으로 조선대 전자공학과 77학번이다. 입학 후 곧바로 군에

입대해 국방부 헌병으로 복무하다 제대를 얼마 앞두지 않은 1979년 12월 13일 지하병거에서 초병 근무를 서다 군사반란군 총탄에 맞고 사망했다.

배우 정우성이 열연한 주인공 이태신 수도경비사령관은 장태완 전 수도경비사령관을 모티브로 했다.

장태완 사령관은 1931년생으로 조선대 법학과 58학번이다. 대구상고를 졸업한 장태완은 6·25가 발발하자 19세에 육군 종합학교에 갑종 장교로 지원, 소위로 임

관하면서 대학에 가지 못했다. 이후 1952년 광주에 군사교육총감부가 설치되고 조선대가 위관·영관 장교 위탁 교육을 맡으면서 장태완은 법학과 학위를 받게 됐다.

또 조선대 교정이 영화 촬영장소로 알려지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영화 ‘서울의 봄’은 지난해 5월 28~29일 조선대 본관 1~3층 복도와 지하대피소 등에서 촬영했다. 복도장면은 영화 초반부 주인공인 배우 정우성과 황정민이 등장하는 장면에 사용됐으며 지하대피소는 영화 중후반 육군본부 B2병거 입구로 등장한다. 촬영 당시 복도와 지하대피소에는 ‘육군본부’ ‘제한구역’ 등의 표지가 부착됐다.

본관 중앙 계단은 4공수 대원들이 송파 특전사령부 참모들을 체포하고 배우 정만식이 연기한 공수혁 특전사령관을 죽이려 진입하는 길목으로 등장한다.

조선대 관계자는 “모교 출신 정선엽 병장이 반란군의 총탄에 맞아 사망한 정황이 확인되고 있어 학교 측은 내년 초에 명예 졸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가 영화의 중요한 장면 촬영장소로 알려지면서 방문객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1979년 12월 12일 신군부 세력의 반란을 그린 영화 ‘서울의 봄’은 이날 오전 기준 누적관객수 506만명을 기록했다.

김혜인 기자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2023시즌이 막을 내렸습니다.
전남을 지지하는 모든 분들의 관심과 응원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2024시즌 더욱 강해져서 돌아오겠습니다.

전남드래곤즈 프로축구단 일동